

## MB정부 대형국책사업 영남이 호남 5배

〈47건·15조5000억〉 〈12건·3조4000억〉

### 전국 절반 가량 영남권 집중... 호남권 소외 고착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남권에 무려 15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집중된 반면 호남권은 이의 4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3조4000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영남에 정책적 방점이 찍힌 '5+2 광역경제권'이 자리잡는데 이어 대형 국책사업들마저 영남에 편중되면서 영·호남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사실상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관련기사 3면>

2일 국회 정부위원회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제 사업이 실시되거나 실시될 예정인 대형 국책사업은 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남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42건인 반면, 호남은 11건에 그쳤으며 투입되는 전체 예산(사업비·국비+지방비+민자) 규모도 영남이 14조2454억원에 이를 반면, 호남은 3조3284억원에 그쳤다.

또한, 같은 상임위의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7월말 현재까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대형 국책사업 20건 가운데 영남지역 사업은 10건이며 이 가운데 실행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은 5건에 예산 규모는 1조2192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지역 국책사업은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1193억원) 단 1

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영남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은 47건에 예산은 15조585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호남은 12건에 3조4467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은 7건에 총 예산은 2조279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남지역 대형 국책사업 4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건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0을 밑돌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결국 사업 실행이 결정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 기간이 대부분 중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영남지역에 중장기적으로 국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국책사업에서 소외된 호남과 경제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와 정책에 이어 국책사업에서도 호남의 소외가 현실화되면서 영호남의 '부익

빈익빈' 구조가 사실상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신규 대형 국책사업은 영남으로, 호남은 과거의 계속사업에 얽매어 있는 형국"이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금빛 남도 들녘

이상 기후와 태풍, 불랑 범씨 파동에도 3일 해남군 북일면 간척지 일대는 벼 수확기를 맞아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저가미 방출로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 6.5%차 박영선 늘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통합 후보로 시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선출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일전을 펼치게 됐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52.1%를 얻어 45.6%에 그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노동당 최규업 후보는 2.3%를 얻었다.

경선 득표율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30%),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30%), 국민참여경선(40%)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배심원단 평가에서도 박원순 후보는 54.4%의 지지로 박영선 후보에 10.3%포인트 앞섰다. 또 지난 1~2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후보는 57.6%를 얻어 39.7%를 얻은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서며 국민참여경선의 열세(46.3% 대 51.1%)를 만회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가톨릭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문의 대학원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 알림

## 우리회사 홍보 콘테스트

중소 홍보·판로 개척 (주)아데크 창립기념  
총상금 3천300만원... 12월 23일까지 응모



광주일보사는 호남지역 중소기업 및 기관·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전문으로하는 자회사 (주)아데크를 창립했습니다.

(주)아데크는 기업홍보전문 인터넷방송국 알리오 TV(www.aliotv.kr)를 설립, 중소기업과 기관·단체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자료를 국내외 협력사와 구매자들에게 알리고, 정부·금융권 등과 연계하여 기업이 안고 있는 금융·기술·판로·인력문제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일보사는 (주)아데크 창립기념행사로 '우리회사 홍보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중소기업 및 시·군·구, 기관·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부문: 동영상 부문(WMV 파일) / 파워포인트 부문
- 응모기간: 2011년 10월 5일(수)~12월 23일(금)
- 응모방법: www.aliot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동영상 및 파워포인트 파일 업로드
- 응모료: 동영상 부문=5만원, 파워포인트 부문=3만원
- 시상: 동영상 부문=1등 1개사 5백만원, 2등 2개사 각 3백만원, 3등 5개사 각 2백만원  
파워포인트 부문=1등 1개사 3백만원, 2등 2개사 각 2백만원, 3등 5개사 각 100만원 (총상금 3천3백만원)
- 결과발표: 2012년 1월 20일(금) 광주일보 지면 및 알리오TV 홈페이지(www.aliotv.kr)
- 문의: (주)아데크 기업지원팀 (062) 223-5111  
www.support@aliotv.kr

\* 제출된 모든 영상물 및 PPT자료의 소유권은 (주)아데크로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www.aliotv.kr 참조.

光州日報社 · (주)아데크

## 광주시가 UNEP와 함께 지구를 살리는 도시환경의 새 역사를 씁니다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  
2011 Gwangju Summit of the Urban Environmental Accords

2011. 10. 11.~14.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도시환경 평가지표 및 도시CDM에 의한 환경도시 조성 국제회의

기조연설자 UNEP 아미나모하메드 사무부총장, UN-HABITAT 후앙크로스 사무총장  
세계적 환경지도자 레스터브라운 지구정책 연구소장

- 주제별 분과회의
- 2011 UEA환경박람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시회
- 4대 국제회의  
- UEA유엔환경계획 청년포럼, 유엔대학&광주광역시 연합 심포지엄, NGO글로벌포럼, 환경학회연합 국제학술회의



40개국 70여개 해외도시, 30여개 국내도시,  
16개 국제기구 및 단체가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눕니다.

www.2011uea.com